

## 43 朝鮮河川調査書 조선하천조사서

1929년 / 조선총독부 / 2,145면 / 05.20-13 조 1929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가 1915년~1928년까지 14년 간에 걸쳐 우리나라 14개 하천에 대해 실시한 사업으로 113만 1,061엔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본문만 982면이고 부표(附表)가 1,163면이며 부도(附圖)만도 243매에 달한다. 부도에는 도표와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년 간 이 조사를 주관한 국장과 부장이 7명, 과장 6명, 고등관(사무관) 14명, 주사 이하 60명에 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사를 주관한 사람은 기사(技士) 梶山淺次郎(가지야마 아사지로)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치수문제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홍수에 관한 공식이라 할 수 있는 ‘가지야마 공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가지야마 공식은 세계적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가지야마는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 모 대학에 가지야마 공식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심사 중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

이 조사서는 조선총독부에서 1929년 8월에 출간한 것인데 필자는 1965년 7월 8일 고향인 대구의 고서점에서 구입했다. 일제가 조사한 14개 하천은 대령강(大寧江), 청천강(淸川江), 대동강(大同江), 재령강(載寧江), 예성강(禮成江), 임진강(臨津江), 한강(漢江), 금강(錦江), 영산강(榮山江), 섬진강(蟾津江), 낙동강(洛東江), 용흥강(龍興江), 성



천강(成川江) 및 만경강(萬頃江)이다.

조사내용은 ① 유역면적, ② 유로연장, ③ 유로상태(지질, 평지면적, 삼림 등), ④ 하천상황(구배, 횡단면, 유량, 조석(朝夕), 하구), ⑤ 항운사항(항해구역, 항해척수[航海隻數]), ⑥ 관개상황(보, 제방, 관개면적, 한수해[旱水害]), ⑦ 저수지(저수량, 유역면적), ⑧ 수력지점 및 하천 이용 상황, ⑨ 양수표(量水標) 및 우량제 설치 위치, ⑩ 치수 계획(하천개수구역), ⑪ 수리계획지점, ⑫ 하천경제조사, ⑬ 하천측량 등 13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 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우리나라의 고기록(古記錄), 이를테면 『經國大典(경국대전)』,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海東釋史(해동석사)』, 『조선 고대 관측기록 조사보고서』, 『朝鮮水經(조선수경)』 및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등을 참조하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떠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일제가 이런 조사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하천에 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그것은 우리가 해방 60년을 맞은 지금까지 하천대장이나 도로대장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